지자체간 교육협력 사업 괄목할 '협업'

도교육청,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교육경비 보조 총액 전년대비 21억원 증가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청, 도내 14개 지자체간의 교육협력 사업이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전북도청을 포함한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총액이 전년대비 3%(21억원) 증가한 711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교육환경 개선 32.1%(25억원), 학력신장 24.1%(20억원)로 가장 두드러진 신장세를 보였다.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학생복리 증진은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21억원이 늘어난 3%가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전북도청을 포함한 지자체들이 ▲방과후학교 운영(18억원) ▲지역인재 육성(21억원) ▲기숙형고 기숙사 운영(12억원) ▲특성화고 육성(12억원) 등을 지원하는 인재 육성사업에 힘썼다고 밝혔다.

또 외국어교육 지원을 위해 ▲원어민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34억원) ▲외국어교육 캠프(4억원) 등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무상급식을 위해 지난해 3백42억원을 지원했으며 학교시설 설치 및 개보수(27억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선 등(44억원)을 지원했다.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방학중 급식을 위해 28억원을 지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주새연초 방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새학기 첫 날인 2일 오전 전주새연초를 방문해 학교 교육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교육감은 학교 전반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등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맞이했다. 전주새연초는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신설 학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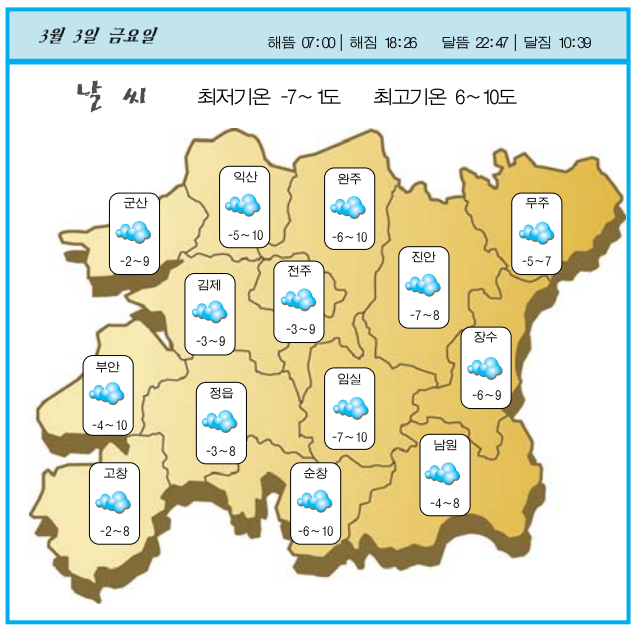
특히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간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이 확산된 것도 큰 성과다.

전주 익산 정읍 남원 완주 5곳에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혁신교육특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 6개 농어촌지역에선 농어촌 교육특구가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해 지자체와 교육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해은기자



전북대, 우간다 농축산 식품 전문인력 양성

농축산식품융학대학원신설, 우간다 학생 11명 입교
두지포크농장 등 산학 연계 실습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우간다와 농축산 분야 협력을 위해 신설한 대학원 과정의 농축산식품융합학과가 2일 오후 3시 30분 입학식을 갖고 개발도상국 농축산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다.

이번에 신설된 농축산식품융합대학은 지난해 전북대가 국제농축산개발협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다.

전북대는 지난해 2월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를 설립해 개발도상국이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고 동아프리카 최고 대학인 우간다 마케레레대학과 인적자원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마케레레대학 축산·수의대학 졸업생을 전북대로 초청해 농축산분야 현장형 인재로 키우기로 합의하고 대학원 과정의 농축산식품융합학과를 신설했다.

이 과정에는 6명의 국내 학생과 11명의 우간다 학생들이 참여, 지역 농축산 관련 기업과 농가 등이 함께하는 산학연계형 석사과정을 밟는다.

이번에 신설된 대학원 과정은 여러모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국내 농축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현재 농축산업 현장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된 외국인 노동자 위주의 인력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지포크, 녹색부농 농장 등에서의 산학 연계 실습을 진행해 국내외 축산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산업 특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국내 농산업 시장의 경우 해외 진출 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 개도국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내 축산산업이 개도국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할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입학식에서 이 총장은 "농축산식품융합학과를 통해 수준 높은 강의와 체계적인 실습 교육을 통해 농축산 개발협력 역량을 함양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자국의 농축산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학생인권 침해 2년 결산 절반 가량 '체벌'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지난 2년간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학생 체벌이 절반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308건에 대해 상담을 했고 총 123건 학생인권 침해사건을 조사했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행위별 구분 현황을 보면 체벌, 폭행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당한 사건이 52%(64건)로 가장 많았다.

인격권 침해가 22%(27건)를 차지했고 △자치활동, 두발 등 기타 12%(14건) △ 사생활 자유 침해가 8%(10건)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전체 123건 중에서 71건(58%)가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중학교 31건(25%), 초등학교 21건(17%)를 차지했다.

/정해은기자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246억원 지원

전라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이 2일부터 24일까지 4주간 운영되며 인터넷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 기간 내에 인터넷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학부모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며 셋째 이상 다자녀가정, 난민인정자도 포함된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본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교과서 구입비, 교복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고등학생 학비 지원에 50억원, 고교 교과서구입비 지원에 6억6,000만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지원과 인터넷통신비 지원 등 교육정보화 지원에 44억5,000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프로그램)에 104억8,00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17억원 등 총 245억9,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해은기자

원도심 지역공동체 활성화계획 수립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전주시가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을 통해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2017년도 원도심 지역공동체 활성화계획 수립사업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시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일 덕진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 원도심 지역공동체 활성화계획 수립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현장에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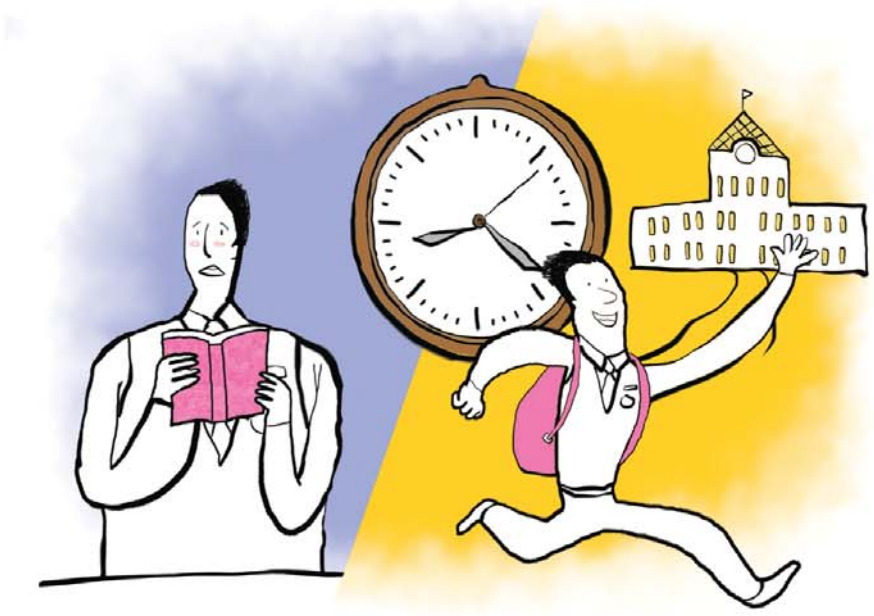
이 사업은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주거지 쇠퇴 등 지역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해오며 마을이 지닌 자원과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28일 인후1동에서 시작된 이번 주민설명회는 오는 7일까지 원도심 12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주민설명회 이후에는 사업공모와 '전주시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주민주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2개 동과 앞서 마을계획이 수립된 4개 동 중 계획을 추진하고 실행할 2개 동을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총 7200만원이 지원된다.

/김민근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